

# 제11회 서울미래연극제 서류 및 실연 심사평

연극계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11회 서울미래연극제 공모에 지원해주신 연극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미래연극제는 서울연극제와 함께 서울연극협회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말 그대로 한국연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위해 마련되는 실험과 축제의 장입니다. 코로나 못지않게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연극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서류 심사에 이어 실연 심사까지 모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서류 심사에는 모두 54개의 작품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작품은 전체적으로 그 소재와 문제의식, 그리고 표현의 형식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지원서와 대본, 동영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작품의 문제의식과 표현 형식, 그 실험에 대한 고민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10개의 작품들을 큰 이견 없이 선정하였습니다.

실연 심사는 지난 8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전체 작품을 단 15분 안에 담아내고자 구슬땀을 흘렸을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이루어졌던 실연 심사의 과정이 단순히 작품의 선정 여부를 가리기 위함보다, 이후의 작업을 통해 각각의 작품들에 담겨 있는 문제의식이나 그 표현의 방식이 좀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선정의 과정에서 중요시되었던 기준은 문제의식의 동시대성과 연극적인 상상력, 창의적인 형식 실험,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였습니다. 사실상 이는 현실에서도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연극이 갖추고 있는 이상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적인 문제의식은 종종 유치함에 머물기 쉬우며, 창의적인 실험은 형식의 미숙함으로 그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연 심사에서는 작품들의 완성도 자체보다 그 가능성에 방점을 두었으며, 역시 큰 이견 없이 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올해보다 한층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적인 작품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미래연극제는 올해부터 만 40세 이하로 지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한국 연극의 미래 세대에 대한 창작 지원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제 기간 동안 공식 참가작 외에도 초청 공연 프로그램 및 시상식 등의 부대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하여 그 축제적인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미래연극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라며, 아쉽게도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한 창작자 여러분들 역시 가까운 시일 안에 대학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심사위원

정범철 우수진 이은진 이주영 황태선